

자동차산업

현대·기아차 미국 판매/점유율 상승세 지속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2월 미국 산업수요 127만대 (-2.9% YoY), SAAR 1,661만대 (-2.8% YoY)

2월 미국 Light-vehicle 판매는 산업수요 성숙 기조 속 1) 예년에 비해 잦은 한파, 2) 1월 연방정부 Shut-down 영향 지속, 3) 연방개정세법 (Tax Cuts and Jobs Act) 발효에 따른 Tax Refund 축소 (18년 대비 평균 17% 감소) 영향으로 Dealer Traffic이 줄어들며, 전년동월 대비 -2.9% 감소한 127만대를 기록했다 (영업일수는 24일로 전년대 동월). SAAR 또한 유사한 감소 폭을 기록했으며, 두 달 연속 1,700만대를 하회했다.

참고로 1월과 2월 총 수요감소 추이 속에서도 Light Truck은 수요성장세를 이어갔으며 (1월 +0.3% YoY, 2월 +1.2% YoY), Car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유지됐다 (1월 -4.0% YoY, 2월 -11.0% YoY).

주요 브랜드 YoY 판매성장률: Toyota -5.2%, Nissan -12.0%, Honda -0.4%, Subaru +3.9%, GM -5.3%, Ford -4.4%, FCA -2.3%, BMW +0.2%, Mercedes -12.4%, VW -5.1%, Tesla +136.4%

현대차 4.7만대 (+2.3% YoY), 판매점유율 3.7% (+0.2%p YoY)

신차효과 통한 SUV 판매호조 (+38% YoY)로 YoY 판매 및 점유율 증가 (4개월 연속)를 실현했다. SUV 판매비중은 사상 최대치인 55%였으며, 지난해 12월 50%를 넘어선 이후 세 달째 유지 중이다. 전체 판매 중 Retail이 +6% YoY 증가한 반면, Fleet은 -9% YoY 감소하며 질적 성장 또한 기록했다.

Kona가 5,686대 (18년 3월 출시)로 판매호조를 유지 중이며, Santa Fe 또한 9,922대로 +5% YoY 판매 (Fleet 제외 Retail은 +35%)를 기록했다.

기아차 4.3만대 (+6.7% YoY), 판매점유율 3.4% (+0.3%p YoY)

SUV 라인업 판매호조를 통해 판매 및 점유율 개선 (7개월 연속)을 기록했다. 스포티지 (6,768대, +15% YoY)가 높은 판매성장을 기록했으며, E-seg SUV 신차 텔루라이드 또한 판매 (315대)를 개시했다. 3월 신차 출시가 예고된 쏘울은 구형재고 출하 확대에 높은 판매증가를 기록 (8,592대, +30% YoY)했다.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3월 4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9년 3월 4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3월 4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